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 10.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 1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 12.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들을 것이요
- 13.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 14.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0-14절

예레미야에 의한 바벨론 포로생활이 70년 계속될 것이라는 예언의 후반부를 배워봅시다.

거짓예언자가 2년으로 바벨론 포로생활이 끝날 것이라고 했지만, 예레미야는 70년 계속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 정착해서 바벨론에서 생활하고, 집을 짓고, 가정을 꾸리고, 바벨론의 번영을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70년이라는,

한사람의 인생의 길이이기도 한, 삼대, 사대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교도국인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맛보게 된 고통스러운 포로생활이었지만, 그 본질은 실로 그냥 저주받은 불행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11절)

그 최종적인 목적은 「평화, 평안」입니다.

여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후반부의 예언에는, 포로 기간과 포로생활이 끝나게 된다는 약속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12-13절)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부르고, 나에게 기도하며, 나는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찾아 도달할 것이다.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찾기 (조사, 연구하다) 때문이다. 」

신개역판 성경(일본어) 처럼 「~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조건부적인 번역도 하나의 해석이 될 것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번역하면, 「 ~해서,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 번역한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결과로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평화」를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담담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 남은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준엄하게 가로 막아 서십니다.

예전에 은혜가 풍성했던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은 필요없는 것 같이 교만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만,

완전히 달라져 이교도국의 비참한 포로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께」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되었습니다.

이 「기도하다」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개인적인 기도에도 공적인 기도에도 사용됩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여겼던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나 개인적인 기도를, 이번에는 성실하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버리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백성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살아있는 교제가 회복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찾아 도달할 것이다. (발견할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기 (조사, 연구하다)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도 뜻대로 되지 않는 포로생활속에서,

자신들의 이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고 조사하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남는 시간에 하는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온 영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애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답에 도달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14절)

이처럼,

모든일이 잘되는 때에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거나 하지 않았습시다만,

어느 것 하나 뜻대로 되지 않게 됨으로 그 원인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드디어는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해주셨습니다.

일본 교회에 있어서 절실한 문제로, 일본교회의 70년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일본교회는 패전후 전도가 거의 되지 않는 바벨론 포로생활과 같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 원인을 생각해보면, 전쟁중에 교회가 행했던 죄악이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전쟁중에 일본의 기독교 교회는,

신사참배라고 하는 우상숭배를 하는 죄를 지었고, 아시아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다시말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1991년에 동맹교단에서 낸 제2차 세계 대전에 관한 회개문인 「요코하마 선언」에서는, 교회의 지은 죄가 단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전시중에,,, 우리 교단은,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는, 국가 신도를 우상숭배문제로서 거부하지않고, 오히려 국민의례로서 받아들여, 십계명의 제 1 계명과 제 2계명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주변 여러 국가의 교회들과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끌어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으며,

국가가 추진하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가담하고, 아시아 지역 침략에 협력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특히 아시아의 많은 이들에게,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침략이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게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는 이 사실을 간과해 버려, 회개하는데 이르지 못했으며, 어떤 자각도 하지 못한 채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이웃나라를 침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저지른 것, 이것이 교회의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를 하고, 주변국가를 함부로 짓밟아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했었던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인 70년을 지내지 않았다면, 더욱더 어리석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키우고 그 악과 더러움을 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를 해도 괜찮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국익을 위해서는 주변국가를 침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우상숭배를 하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것을 허락하는 목사는 목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는 편이 낫습니다.

조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수치고 망신일 뿐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열매를 허락해주시지 않았습니다.

70년간이나 포로생활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포로생활 70년간, 지금의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그 원인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목사와 신도들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함께하고 있는 신슈하기선교강좌와 주기철목사 기념 모임 사역은 그 중의 하나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원인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저지른 죄에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 위한 열쇠는 회개에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교회가 본래의 사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이 거듭난 교회의 새로운 사역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는, 우상숭배의 무서움을, 어느 한국인 목사님의 한번의 설교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싫어하시는 죄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만삼천명을 죽게 하셨으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교회에 있어서도 바울 사도가 제명할 것을 명령하고, 영원한 형벌에 해당하는 죄라고 설교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는데, 그 설교를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한번 듣고 다시는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되지 않아서, 우상숭배라는 죄와 목숨을 걸고 싸웠던 순교자들을 통해서, 교회와 목사의 책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목회와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가운데,

교회는 무엇이며, 목사는, 기독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게 되었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신학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16세기의 개혁자들은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이미 배워 알고 있었던 것이였습니다만,

전시중의 일본 교회를 비춰보니, 실패의 본질이 확실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악마의 유혹에 빠져, 교회와 목사가 자신들의 임무를 저버리고 얼토당토하지 않은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이야말로 교회와 목사의 결정적인 죄악입니다.

그리고 전쟁후에도 이 같은 선배 목사님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흐지부지 하면서 교회를 지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채

그야말로 「전쟁이 끝난 후에는 이 사실을 간과해 버려, 회개하는데 이르지 못했으며, 어떤 자각도 하지 못한 채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쁘다면 무엇이 나쁜 건지,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일본기독교사 교과서에도 신사참배에 관한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도도 목회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이라는 외부로부터 강력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약속해 주신대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는」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루터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 관해서」라는 문서에서,
당시의 로마교회는 악마의 유혹에 빠져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으며,
특히,
본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야 하는 예배와 성례전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인간의 무거운 쇠사슬 아래에서 징역과 고역에 허덕이며 괴로워하는,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그 회복을 호소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는 문자 그대로입니다만,
루터는 교회가 악마의 포로가 되었다고 하는 「바벨론 포로」로 재해석했습니다.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
사람밖에 안 보인다,
오직 인간과 관례, 관습만으로 이것이 교회다, 그리스도교다 라고 말한다.

루터는, 「흑암의 지배자인 악마가 현혹해서, 하나님도 은혜도 보이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밝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모든 허식을 걷어내고,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포로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교회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원점입니다.

70년이나 되는 긴 바벨론 포로생활은 확실히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의 때이기도 했습니다.

70년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징계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분과 다르다,
지금까지 사람한테 배워왔던 것과는 다르다, 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살펴 조사하고, 연구함으로 진리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과 다음 세대에 바르게 전해야 하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